

## 19세기 星湖學派 문인의 문물 고증과 기록, 『東事日知』

정 은 주\*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東事日知』 글쓰기의 특징 |
| II. 星湖學派의 家學 전통과<br>『東事日知』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東事日知』는 李學達가 김해에 유배된 지 19년째가 되는 1819년에 지은 저술이다. 이 책은 모두 123조목에 걸쳐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문물·제도·풍속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여러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고증하고 기록한 저술이다. 『동사일지』에는 저자인 이학규의 방대한 지적 세계와 독서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 학계에서 그동안 주목받아 왔던 현실주의적 한시가 창출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물론, 그의 실학적 사고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저작이다.

이학규는 外家人 南人家에서 성장하면서 가학적 전통을 깊이 흡수하였다. 『동사일지』의 창작 배경에는 성호학파의 가학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성호학파의 학문적 계보를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李瀾의 『星湖僊說』과 李家煥의 『貞軒瑣錄』이 각각 17세기와 18세기를 대표하는 성호학파 문인의 백과전서적 저술에 해당된다면, 『동사일지』는 19세기 성호학파 문인의 백과전서적 저술인 것이다. 곧 『성호사설』-『정현쇄록』-『동사일지』로 이어지는 저술 창작은 성호학파의 백과전서적 학풍이 시대별로 계승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 성균관대학교 시간강사 / somedayjj@hanmail.net

본고는 『동사일지』의 특징적 면모를 살피고, 아울러 성호학파의 저술 전통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동사일지』의 내용과 특징을 밝히는 연구는 이학규의 실학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확보하는 데에서 나아가, 성호학과 문인의 백과전서적 학풍과 시대별 전승의 양상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동사일지』, 이학규, 성호학파, 근기남인, 백과전서

## I. 들어가며

洛下生 李學達(1770~1835)의 『東事日知』는 저자가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 독서와 견문을 통해 고증한 내용을 기록한 저술이다. 이학규는 南人家에서 성장하여 『奎章全韻』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일찍이 그 文才를 떨쳤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政爭의 회오리에 휘말려 오랜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다.

『동사일지』는 이학규가 김해에 유배된 지 19년째가 되는 1819년에 지은 저술이다. 이 책은 모두 123조목에 걸쳐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문물·제도·풍속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국내외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고증하고 기록한 필기류 저작에 해당한다. 필기류의 특성상 저자의 독서체험과 학식이 무르익은 만년에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때, 『동사일지』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산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사일지』에는 저자인 이학규의 방대한 지적 세계와 독서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동사일지』는 학계에서 그동안 주목받아 왔던 이학규의 현실주의적 한시세계가 창출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물론, 그의 실학적 사고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저작인 셈이다.

이학규는 外家인 남인가에서 성장하면서 성호학통을 이은 문사들과 가깝게 교류하였다. 이러한 가학적 배경은 저술 창작에 깊은 영향을 미

쳤다. 『동사일지』가 창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호학파의 저술 전통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근기남인학파의 학문적 계보를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찍이 근기남인학파의 종장으로 추앙받는 星湖 李瀼은 방대한 분량의 백과전서인 『星湖僊說』을 남긴 바 있다. 이후 성호학파의 문인인 貞軒 李家煥은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고증하고 기록한 『貞軒瑣錄』을 남겼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저작이 17~18세기에 성호학파 문인이 세상의 만물을 고증하고 기록한 백과전서에 해당된다면, 『동사일지』는 19세기에 저술한 백과전서에 해당된다. 곧 『성호사설』-『정헌쇄록』-『동사일지』로 이어지는 저술 창작은 성호학파의 백과전서적 학풍이 시대별로 계승되어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사일지』의 특징적 면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성호학파의 저술 전통 속에서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것이다.<sup>1)</sup> 우선 성호학파의 가학 전통을 살피고, 그 속에서 『동사일지』가 지니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동사일지』보다 앞선 시기에 저술된 성호학파 문인의 대표적인 백과전서적 저술로 『성호사설』과 『정헌쇄록』을 설정하고, 각각의 저술과 『동사일지』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상으로 『동사일지』의 내용과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는 이학규의 실학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확보하는 데에서 나아가, 성호학파 문인의 백과전서적 저술의 시대별 양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I. 星湖學派의 家學 전통과 『東事日知』

성호학파는 경세치용의 학풍을 특색으로 하는 近畿지방의 南人학파를 일컬으며, 근기남인학파라고도 부른다. 성호학파의 종장인 이익의 학문은 家學으로서 아들 李孟休, 조카인 李秉休·李用休·李萬休, 손자인

1) 『東事日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단독으로 진행된 바 없으며, 이학규와 관련된 연구에서 저술의 일부로 언급되었다.

李九煥, 종손인 李嘉煥·李森煥·李重煥·李家煥에게 전승되었다. 이들 가운데 이맹휴는 禮學에, 이병휴·이구환·이철환·이삼환은 經學에, 이용휴는 文學과 曆學에, 이중환은 인문지리에, 이가환은 西學에 밝았던 것으로 전한다.<sup>2)</sup> 이익의 문하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 이익이 문인들 각자의 소질에 맞는 방향으로 학문을 지도했기 때문이다. 이익은 각자의 재능에 맞는 학문주제와 방법을 제시해줌으로써 본인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 스스로 궁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글을 읽고 깨우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색하기를 당부했는데, 후학에게 自得을 강구하라는 가르침을 내린 사실은 만년에 이르기까지 이익이 얼마나 자득을 중시했는지 알게 한다.<sup>3)</sup> 이익의 문하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용휴와 또 그의 후손인 이학규 역시 자득을 중시하는 학문 태도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익의 학문관이 세대를 이어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sup>

이학규는 외조부인 이용휴의 집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외가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이용휴와 이가환에게 직접 학문을 전수받았으며, 자연스럽게 성호학과 문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가학적 전통을 깊이 흡수하였다. 이학규가 성호학파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실은 후대의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일찍이 李家源 선생은 이학규에 대해 성호학파에서 이용휴를 이어 문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문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용휴의 文才는 아들인 이가환에 이어 외손자인 이학규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평가했다.<sup>5)</sup> 이학규가 학계에서 근기남인학파의 마지막 세대 문인

2) 이우성 선생은 성호 이익에 대해 繼往開來의 역사적 처지에서 門弟子姪들의 群英이 활짝 꽃을 피웠다고 하면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濟濟多士들이 성호의 문정에서 나와 혁혁하게 일세를 照耀하였다고 했다(『해제』, 『近畿實學淵源諸賢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3)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학풍 연구』, 혜안, 2003, pp.46-47.

4)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13-18.

5) 李家源, 「韓國名人小傳」, 『李家源全集』 9, 정음사, 1986.

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문학으로써 이용휴를 계승한 것으로 인정받은 이학규는 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 문학의 기반을 다졌다.<sup>6)</sup> 이를 통해 본다면 이학규가 그의 문학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이학규가 문학창작의 원천으로 眞情의 표출을 강조한 것이나, 문집 곳곳에서 소품취의 글이 발견되는 것은 이용휴에게 수학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일찍이 通園 俞晩柱가 “혜환은 장서가 제법 풍부한데, 모두 奇文異冊으로 평범한 것은 한 질도 없다.”라고 증언한 바 있듯이, 이학규가 외가에서 지낼 당시 이용휴의 집에는 장서가 풍부하여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광범위한 학문 세계를 형성하고 고증적 학문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장서가 필수적 요소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세기 조선 학계에서는 고증학이 새로운 학문연구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다. 한학의 대두와 유행은 물론 청대 고증학의 유입에 자극된 것이었지만, 그 학문적 특성상 박학과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sup>7)</sup> 곧 이학규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광범한 독서 폭과 박학한 지식의 원천에는 외가에서 성장하면서 수학한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가의 장서는 이학규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학규는 유배 이전까지 외숙인 이가환과 시문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였다. 당시 이가환은 기억력이 매우 비상하고 해박하여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한 인물이었다. 이학규 또한 산천과 도리, 풍토와 지리에서부터 의약과 금수에 이르기까지 명물도수에 박학다식했던 문인이었다.<sup>8)</sup> 곧 두 사람 모두 폭넓은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식

6) 李學逵, 『洛下生集』 冊14, 『文漪堂集』, 「權耆配驪州李氏墓誌銘」, p.473, “予不祿于天, 先考棄世五閱月, 而先妣始媿余于予外家皇華里第. … 時惠賔公方教予學跼坐, 口授唐人詩絕句若干篇.”

7)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p.271.

8) 張志淵, 『逸士遺事』, 「李學逵」, pp.321-322, “公이 博學多識호야 凡山川·道里·風土·地理·天文·星曆·律呂·算數·醫藥·草木·禽獸等 名物度數를 無不博究通曉호고 詩詞文章이 尤精邃簡潔호야 … 所著有名物考·廣詩則·

견을 견지했던 문인으로, 이학규의 박학한 학문 성향은 이가환의 학문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곧 이학규가 일생동안 문예적인 문장을 추구했던 것은 외조인 이용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학적 학풍을 보여주는 여러 저술에서 드러나는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관심과 박학한 식견은 외숙인 이가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이익에서 이용휴와 이가환을 거쳐 이학규로 이어지는 성호학파의 학맥은 그들의 저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익의 학문세계는 경학중심의 질곡을 벗어나 일생동안 학문의 자유를 실천하여 각 방면에 걸쳐 탐구하였고, 그 결과 방대한 저작을 남기게 되었다. 이익의 대표적인 저술로 『星湖僊說』을 꼽을 수 있다. 『성호사설』은 천하 만물에 대한 것은 물론 古今의 일과 中國과 西洋諸國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견해를 집대성한 것으로, 天地門·萬物門·人事門·經史門·詩文門 등으로 분류하여 3,057항목에 걸쳐 논술한 거질의 저작이다. 이와 같은 이익의 백과전서적 박학주의는 이가환을 거쳐 이학규에까지 그 학맥이 이어지고 있다. 비록 『성호사설』의 방대한 학적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가환의 『정현쇄록』과 이학규의 『동사일지』를 통해 성호학파의 지적 전통이 계승되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가환의 『정현쇄록』은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정밀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잘 나타나는 저술이다. 이 책은 역사·풍속·시문·서화 등 학술문화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 저자의 견해를 雜記한 형태로 써 놓은 것이다.<sup>10)</sup> 그런데 『정현쇄록』은 『동사일지』와 비교하여 그 체제와 내용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sup>11)</sup> 실제로 두 저작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명칭의 조목은 물론 유사한 내용이 수록된 조목도 발견된다. 예를 들

嶺南樂府·因樹漫筆·文漪堂稿·洛下集等書호니라.”

9)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연구』, 보고서, 2005, p.80. 참조.

10) 정우봉, 「해제」,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11) 『貞軒瑣錄』에 대해서는 정은진, 「근대적 일상의 탐구와 기록정신-이가환의 『정현쇄록』 해제」, 『민족문화사연구』 31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참조.

어 『동사일지』에 수록된 「照羅赤」은 『정헌쇄록』에 수록된 「燭刺赤」와 비교할 때 명칭의 표기법은 상이하지만, 동일한 소재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sup>12)</sup> 이외에도 『동사일지』의 「上元踏橋」와 『정헌쇄록』의 「踏橋」, 「公兄」과 「三公兄」, 「陞補試」와 「陞補試」, 「家蓼」과 「人蓼」<sup>13)</sup> 등의 조목은 그 명칭과 내용이 유사하다. 이를 통해 볼 때 『동사일지』는 『성호사설』보다 『정헌쇄록』과 좀 더 친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학규가 외숙인 이가환과 직접적인 사숙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사일지』와 『정헌쇄록』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보다 밀접한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학규의 학문세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성호학파의 학풍을 이어받은 이용휴와 이가환을 비롯한 가학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학규가 『동사일지』를 저술할 수 있었던 내적 동인으로 작용했다. 성호학파의 가학적 전통 속에서 외가의 장서를 열람하며 박학한 지식세계를 구축하고 고증적 학문태도를 견지했던 이학규는 그 결과물인 『동사일지』를 창출할 수 있었다.

### Ⅲ. 『東事日知』 글쓰기의 특징

『동사일지』는 1985년 한국한문학회에서 3책으로 영인해서 간행한 『洛下生全集』 下卷과 『韓國文集叢刊』 290권 『洛下生集』 冊二十에 수록되어 있다. 두 저본 모두 일본 天理大學 圖書館藏本으로, 今西龍이 천리대학에 기증한 寫本이다.

『동사일지』는 모두 123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목마다 명칭이

12)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변모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pp.149-150.

13) 『동사일지』 「家蓼」과 『정헌쇄록』 「人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정은주, 「조선 후기 家蓼 재배와 『蓼書』」, 『한국실학연구』 24, 한국실학학회, 2012, p.467. 참조.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각 조목의 분량은 편폭이 긴 것이 있는 반면, 한 두 줄에 그치는 짧은 편폭의 것도 있어 대체로 일정하지 않다. 조목의 전체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몇 개의 유사한 주제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자 또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각 조목의 서술방식은 대체로 해당 내용을 국내외 문헌 자료와 견문을 통해 고증한 뒤, 저자의 비평적 견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단순한 독서기의 성격을 넘어서는 것으로, 일종의 차기체 필기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sup>14)</sup>

『동사일지』에서 ‘東事’는 ‘東人の 人事’라는 의미이다. 동사는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규와 제도, 체제, 풍속 등이 포함된다. 곧 ‘東事日知’라는 제목은 ‘東人の 人事를 날마다 기록한다.’라는 의미로 파악되며, 이학규가 평소에 독서하거나 견문한 것에서 그때마다 적어둔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sup>15)</sup> 또한 『동사일지』는 청나라 문인 顧炎武의 저술인 『日知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 저술의 명칭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학규가 『일지록』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인용한 것에서도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sup>16)</sup>

14) 진재교 교수는 차기체 필기에 관해 18·19세기에 나온 필기와 총서류에서 볼 수 있는 글쓰기 전략의 하나로, 단순한 독서기의 성격을 넘어선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기체 글쓰기의 성격은 각 조목의 내용과 비평적 덧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며, 비평적 덧글에서 보여주는 박학한 지식과 풍부한 식견은 작자의 독서체험 및 객관적 안목과 가문학적 지적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19세기 筭記體 筆記의 글쓰기 양상」, 『한국한문학회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15) 일찍이 顧炎武도 『日知錄』의 서문에서 “나는 젊어서부터 글을 읽고 무엇이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그때마다 기록을 해두었다. 기록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때때 고쳐 적었다. … 삼십여 년 간 차곡차곡 적어서 이제 책 하나가 이루어졌다. ‘날마다 그 없는 바를 알고, 달마다 그 능히 할 수 있는 바를 잊지 않으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라고 한 子夏의 말을 따워서 日知錄이라 이름하고, 후대의 학자들에게 비판을 청한다.”라고 하였다.(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 출판부, 1998, p.254.)



『동사일지』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조 목
역사 지리	三韓疆域 四郡
문물 제도	箕子祠 姓氏 韓骨 大成殿 聖廟木主 大成至聖文宣王 春秋上 丁釋菜 親幸釋奠 吏兵曹政案 都日政 落點 守令薦 外任文武 交遞 監察茶時 廣興倉頒祿 關子移文牒呈 佛法 關王廟致祀 龍王帝釋 巫房 台子神 兩班 品官 上舍 風憲 貢生 別抄 所 由 螺匠 照羅赤 司鑰 其人 該色 摠攝 有髮僧 衙前 公兄 戶長 大房 香徒 花郎 奴婢 栳栳白丁 市塵 水田 瓦屋 溫突 牛耕 行錢 還上 田災 銃 焰硝 濟州馬 殺糶 家蓼 南草 南 瓜 綿花 數名具書 利上加利
과거 교육	新恩調聖 養賢庫 太學捲堂 七書諺解 朱子四書集註 初學千字 文 設科取士 科舉程式 科文體格 糊名 式年科 監試 東堂試 陞補試 明經科 武科 漢學講 守令七事講
풍속	正朝歲拜 春耕祭 上元踏橋 上元藥飯 八日燃燈 八日蒸豆 端 午鞦韆 流頭 嘉俳 冠服華制 青衣 天翼 風遮 方築纓子 網巾 平頂巾 褂子 行纏 襪子 唐鞋雲鞋 鞋釘 妓生着氈笠 軍服 髻 髻 乾正果 油蜜果 燒酒 饊花 絲花鳳 赤壁賦砂鉢 玄琴 伽倻 琴 拋毬樂 舞鼓 廣大 石戰 紙鳶 風車 瓜子兒 鬪棧 從政圖 擊錢戲 柶木戲

『동사일지』의 글쓰기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자국의 문물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비롯하여 자국 고유의 문화와 문물에 대한 고증과 기록은 자국 문물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고증에 의한 사물의 기원 탐구이다. 『동사일지』에는 문물의 기원을 치밀하게 따져서 고증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는 사물의 원류에 대한 저자의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유배지역 특성과 실체험의 반영이다. 저자의 오랜 유배체험에

16) 임형택 선생은 『洛下生全集』(아세아문화사, 1985) 해제에서 “顧炎武의 『日知錄』을 염두에 두어 『동사일지』라고 책명을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서 비롯된 영남지역의 다양한 풍물과 풍속에 대해 고증하고 기록한 점은 다른 백과전서적 저술들과 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 1. 자국 문물에 대한 주체적 인식

이학규는 역사를 학문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讀書之士’가 몰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학문에 뜻을 둔 유배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史評十八則』을 저술하기도 하였다.<sup>17)</sup> 이 책은 지금 현전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이학규의 역사관이 반영된 저술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이학규는 평소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러한 역사관은 『동사일지』에도 반영되었다.

『동사일지』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자국의 역사 지리에 관한 조목이 가장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주제의 조목은 다른 조목에 비해 편폭이 상당히 긴 편으로, 이는 저자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일지』의 첫 번째 조목은 「三韓疆域」이다.

삼한의 강역에 대한 변론은 예로부터 정해진 논의가 없다. 그 설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국인들이 요동을 삼한이라 부르는 것이요, 둘째는 『宋史』, 「地理志」에 “고주의 삼한현은 진한이 부여이고, 변한은 신라이며, 마한은 고구려이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셋째는 문창후 최치원이 “마한은 고구려요, 변한은 백제이다.”라고 한 것이며, 넷째는 양촌 권근이 비록 마한이 백제인줄은 알았지만 고구려가 변한이 아님을 모르고 혼동하여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명 天啓 初 年에 요양을 잃은 후 황제에게 아뢰는 글에 마침내 요인을 삼한사람이라 말하며

17) 李學逵, 『洛下生集』 冊16, 『秋樹根齋集』, 「二十一史評序」, p.507, “今於三十年間, 遺忘已過半, 而猶櫛括其大意. 作史評十八則, 以諭邑人之志學而好問者, 使知夫編年之外, 另有史例, 而史亦有二十一代之紀傳表志, 讀書之士, 不可不知者也.”

그들을 구분지어 언급한 것이 있으며, 청나라 사람 고염무는 “요인들은 스스로 삼한이라 일컬으며 자신들을 구분 지으려 한다.”고 기록하였는데, 「지리지 에 실린 것을 잘못 계승하기만 하고 변론은 하지 않았다. 그 근원은 최치원에게서 처음 잘못되었으며, 권근에서 채차 잘못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 천 년 동안 논설이 분분했지만 끝내 단안이 없다.<sup>18)</sup>

三韓은 삼국 시대 이전 한반도 중남부에 있었던 馬韓·弁韓·辰韓을 가리키는데, 그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설이 있다.<sup>19)</sup> 『宋史』의 「地理志」에서는 진한이 부여, 변한이 신라, 마한이 고구려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최치원은 마한이 고구려이고 변한이 백제라고 하였으며, 권근은 마한이 백제인줄은 알았지만 고구려가 변한이 아님을 모르고 혼동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문인 고염무도 『宋史』에 실린 내용을 잘못 계승하기만 했을 뿐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학규는 삼한 강역에 대한 최치원과 권근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의견만 분분할 뿐 끝내 단안이 없다고 토로하였다.

이학규가 기록한 바와 같이, 삼한의 강역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문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동국의 외재적인 형세를 규정하는 강역은 이익과 그 문인들이 관심을 보였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sup>20)</sup> 安鼎福은 삼한 강역에 대해 우리나라 문헌에 증빙할 만한 것이 없어 삼한의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삼한의 땅이 지금의 漢水 이

18) 李學遠,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三韓疆域」, p.598, “三韓疆域之辨, 自古無定論. 其爲說有四, 其一華人謂遼東爲三韓, 其二宋史地理志, 有高州三韓縣, 辰韓爲扶餘, 弁韓爲新羅, 馬韓爲高麗. 其三崔文昌謂馬韓高勾麗也, 弁韓百濟也, 其四權陽村雖知馬韓之爲百濟, 而不知高勾麗之非弁韓, 混而言之. 按大明天啓初失遼陽以後, 章奏之文, 遂有謂遼人馬三韓者外之也. 清人顧炎武譏遼人之自稱三韓以自外也, 地理志所載, 承譌襲謬, 不當置辨也. 其源始誤於文昌, 再誤於陽村, 至今數千年間論說蝟興, 而迄無斷案也.”

19) 이학규가 삼한 강역에 대해 변증한 글은 『海榴庵集』에도 실려 있다(『洛下生集』 冊20, 『海榴庵集』, 「三韓疆域辨」, p.443.)

20) 원재린, 앞의 책, p.220.

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sup>21)</sup> 또한 韓致瀾은 옛날에는 漢水 남쪽을 韓國이라고 하고 또한 辰國이라 불렀다고 하면서, 삼한 중에서 마한이 가장 크며 진한과 변한이 모두 마한에 복속했다고 변증하였다.<sup>22)</sup> 이익은 『星湖僊說』에서 삼한의 강역에 대해 마한이 기준에게 쫓겨난 후 마한과 진한 두 나라 사이에 별도로 변한이 있었다고 하면서 마한에 예속된 나라로 보았다.<sup>23)</sup> 그리고 이익은 최치원의 삼한 인식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이학규가 삼한 인식의 잘못된 근원으로 최치원을 지적한 것과 상반된다. 이익은 최치원의 삼한설에 내포된 의미와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당시 사람이었던 최치원이 어긋난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그의 삼한설을 적극 옹호하였다.<sup>24)</sup>

대개 삼한은 옛날 辰國인데, 그 중 마한이 가장 크다. 진나라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요역을 피해 한반도로 들어오자 마한은 동쪽 경계를 떼어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진한이다. 또한 그 남쪽은 변한으로 진한에 속해 있었다. (中略) 新莽 元년에 온조가 마한을 멸하고 백제를 세웠으니, 곧 마한이 지금의 충청·전라 양도임을 알겠다. 漢 宣帝 五鳳 元년에 박혁거세가 진한 육부의 백성들에게 추대되었으니, 곧 진한이 지금의 경상도임을 알겠다. 변한은 비록 어느 곳에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中略) “진한이 동쪽에 있다”는 글에 근거해 보면 곧 지금의 경상좌도가 진한이며, “변진은 남쪽에 있고 또 왜와 접하고 있다”는 글에 의거하면 곧 경상우도의 김해·창원·웅천·거제·진해·고성 등이 변진인 것이다.<sup>25)</sup>

21) 安鼎福, 『東史綱目』附錄 下卷, 「三韓考」.

22) 韓致瀾, 『海東繹史』續集 卷3, 「地理考」3, 「三韓·疆域總論」.

23) 李瀾, 『星湖僊說』卷3, 「天地門」, 「三韓」.

24) 문창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 한국고대사학회, 2011, p.81.

25) 李學滄, 『洛下生集』冊20, 『東事日知』, 「三韓疆域」, p.598, “蓋三韓, 古之辰國也. 其中馬韓最大. 秦之亡人, 避役入韓地, 馬韓割東界以與之, 是爲辰韓. 又其南爲弁韓, 屬於辰韓. … 新莽元年, 溫祚滅馬韓而爲百濟, 卽知馬韓爲今之忠清全羅兩道也. 漢宣帝五鳳元年, 朴赫居世爲辰韓六部民所推戴, 卽知辰韓爲今之

이학규는 삼한의 위치를 고증한 것 가운데 韓百謙의 「三韓辨」이 가장 옳은 것으로 보았다. 한백겸은 삼한을 삼국에 비정하던 전통적인 삼한 인식을 벗어나, 마한-백제, 진한-신라, 변한-가야로 새롭게 파악하였다. 나아가 그는 마한의 위치를 호서와 호남지역 곧 오늘날 한강 이남의 경기·충청·전라도 지역으로, 진한과 변한을 각각 경상도 동북과 서남지역으로 비정하였다.<sup>26)</sup> 이학규는 삼한의 위치에 대해 진한의 남쪽은 변한이고, 이후에 마한이 멸하고 백제가 들어섰으니 곧 마한이 지금의 충청도·전라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한은 박혁거세가 세운 신라가 되었으니 지금의 경상좌도에 해당하고, 변한은 경상우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이학규는 「三韓疆域」에서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삼한의 강역을 고증하고, 아울러 삼한의 강역과 실제 지리적 위치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당 지명을 기록했다. 곧 삼한의 강역을 고증하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드러냈다.

『동사일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유 문물에 대한 고증과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학규가 타자와 변별된 시각에서 자국 문물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인식한 위에 『동사일지』를 저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향도의 호칭은 네 가지가 있다. 『金官國志』에 김유신이 나이 15세에 화랑이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흡연히 복종하여 ‘용화향도’라 불렀다. 『高麗史』 원종 9년에는 승려와 속인이 마구 섞여 무리를 이루자 이를 ‘만불향도’라고 불렀는데, 혹은 염불과 독경을 하면서 거짓으로 속이기도 하고 혹은 술에 취해 무기를 가지고 날뛰면서 놀았다. 이에 어사대 금오위순검에 명하여 금지시켰다. 「沈于慶傳」에는 나라 풍속에 계를 맺고 향을 피우는 것을 ‘향도’라고 이름

慶尙道也。弁韓雖未知的據何地。… 卽據辰韓在東之文，卽今之慶尙左道是也，弁辰在南亦與倭接之文，卽今之慶尙右道金海·昌原·熊川·巨濟·鎭海·固城等地是也。”

26) 문창로, 앞의 논문, pp.71-73.

하였는데, 서로 돌아가며 연회를 열어서 남녀노소가 서열대로 앉아 같이 술 마시는 것을 향도연이라고 불렀다. 본조에는 남의 상여를 메는 것을 ‘향도’라고 하는데, 지금 그 무리는 모두 무뎠고 구걸하는 부류일 뿐이다. 이 때문에 고려 때의 승려와 속인이 섞인 무리에 비교하니 그 명칭을 이어받은 것인가.<sup>27)</sup>

위에 인용한 조목은 「香徒」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향도의 호칭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호칭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신라시대 김유신이 이끌던 화랑인 ‘용화향도’가 첫 번째이고, 고려 때 거짓과 자행을 일삼아서 결국 금지된 ‘만불향도’가 두 번째이다. 그리고 『고려사』 열전, 「심우경전」에 기록된 ‘향도’가 세 번째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조선시대 때 남의 상여를 메는 것을 부르는 호칭인 ‘향도’이다. 이상과 같이 향도는 각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조선의 향도에 대해 무뎠고 구걸하는 부류로 규정하면서, 고려 때 금지된 만불향도에 비유하였다. 곧 조선의 향도가 승려와 속인의 잡류가 모여 때를 이루면서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술을 파는 만행을 일삼아 국가의 금지를 당한 만불향도에서 그 명칭을 이어받은 것이냐고 하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학규는 우리나라 고유 문물에 대해 고증하고 기록하는 한편, 중국의 문물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서술 방식을 취하였다.

지금 난방은 난상이라고도 한다. 속칭 온돌인데, 중국의 토향과는 그 제도가 조금 다르다. 고염무의 『日知錄』에 “북쪽 사람들은 흙으로 상을 만들고 그 아래에 구멍을 뚫어서 불을 지피는데 향이라 한다. 고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고 하

27)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香徒」, p.611, “東國香徒之稱有四. 金官國志, 金庾信年十五, 爲花郎, 時人洽然服從, 號龍華香徒. 高麗史元宗九年, 僧俗雜類, 聚會成羣, 號爲萬佛香徒. 或念佛誦經, 作爲詭誕, 或醉酒持兵, 踴躍遊戲. 令御史臺金吾衛巡檢禁止. 沈于慶傳, 國俗結契燒香, 名曰香徒, 相與輪設宴會, 男女少長序坐共飲, 謂之香徒宴. 本朝爲人擔喪譽曰香徒, 今其徒皆無賴乞匄之流. 故比之勝國之僧俗雜類而襲其名歟.”

였다. (中略) 유동의 『帝京景物略』에 “융안사의 당우는 넓이가 다섯 길이고 벽돌로 한 자를 쌓아 불길을 그 아래에 들게 하였는데, 불 피운 석탄이 삼백 근으로 염불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였다. 이것이 난방의 제도임을 알겠으니 사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舊唐書』, 『高麗傳』에 “겨울철에는 모두 장갱을 만들어서, 아래에다 숯불을 지펴 따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법제는 또한 사찰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니 고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는데, 수 백 년 전에는 온돌의 법제가 오히려 널리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sup>28)</sup>

위 글은 溫炕의 유래에 대해 고증한 것이다. 온돌은 우리말로 구들이라고도 하는데, 추위에 대비한 난방 제도의 일종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난방 혹은 난상이라고도 하는 우리나라 온돌은 중국의 토항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劉侗의 『帝京景物略』에는 隆安寺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위해 벽돌 아래 불길을 쌓은 것을 난방 제도의 시초라고 되어 있으며, 『舊唐書』의 『高麗傳』에는 겨울철에 숯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한다고 하여 난방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나타냈다. 『帝京景物略』은 명나라 때 劉侗과 于奕正이 공동으로 찬한 책으로, 당시 북경의 경물에 대해 기록한 일종의 중국 세시기이다. 이 책은 이학규가 『동사일지』에서 고증에 활용한 주요 참고문헌 가운데 하나이다.

이학규는 고금의 문헌을 참고하여 온돌의 유래를 고증한 데에서 나아가, 주위 노인들에게 직접 견문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온돌이 시행되기 전에는 湯婆와 炊鐵을 이용해서 추위를 막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지금도 이들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한다. 곧 우리나라의 온돌과 중국의 토항은 난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방식에서

28)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溫炕』, p.614, “今之煨房, 或曰煨牀. 俗稱溫炕, 與中國土炕, 其制小異. 顧炎武日知錄, 北人以土爲牀, 而空其下以發火, 謂之炕, 古書不載. … 劉侗帝京景物略, 隆安寺堂, 廣縱五丈, 磚方以尺, 火道旋其下, 日燄煤三百斤, 以煨念佛者, 是知煨房之制, 始于佛刹. 舊唐書高麗傳, 冬月皆作長坑, 下然熅火以取煨. 然則其法, 亦未始于佛刹, 而始于高麗也. 嘗聞故老言, 數百年前, 溫炕之法, 猶未通行.”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이학규는 『동사일지』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문물과 중국의 문물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신는 벼선이 중국의 벼선과 다르다고 한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sup>29)</sup>

玄琴의 제도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다. 『東史纂要』註에 “처음에 쑤나라 사람이 칠현금을 고려에 보내왔다. 고려 사람들이 그것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국상인 왕산악이 고쳐서 연주하매 검은 학이 내려와 춤을 추니 명칭을 현학금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옥보고란 사람이 있는데 지리산에 들어가 금을 50년간 연구하였으니, 세 번 전하여 귀금에까지 이르렀는데 또한 지리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왕은 琴道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윤홍을 남원 군수로 삼아 전수받도록 하였다. 윤홍이 안장 등 2인을 보내어 예를 다하여 그것을 배웠는데, 秘·飄·風 등 세 곡이 전한다. 안장이 아들 극중에게 전수한 것으로 평조와 우조가 있는데 세상에 전한다.<sup>30)</sup>

위 조목은 우리나라의 고유 악기인 玄琴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吳灋이 편찬한 『東史纂要』를 참고하여 현금의 유래에 대해 기록하고, 아울러 현금의 전승에 관한 고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악기 가운데 腰鼓, 大琴, 編鍾, 編磬, 柷, 敔, 壘, 篪 등의 악기는 중국의 제도이다. 이에 반해 현금은 옛날 五絃을 본뜨면서 1絃을 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따른 것이다.<sup>31)</sup>

거문고는 진나라 사람이 고구려에 보낸 七絃琴을 왕산악이 개량하여

29)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襪子」, p.624, “我國之俗, 京外上下, 皆著襪子, 與中國襪制差異, 古人之鞮, 大抵以皮爲之, 故字從革.”

30)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玄琴」, p.626, “玄琴之制, 惟我東有之. 東史纂要註, 初, 晉人以七絃琴, 送高麗, 麗人不知鼓之之法, 國相王山岳, 頗改其制以奏, 有玄鶴來舞, 名玄鶴琴. 又有玉寶高者, 入地理山, 學琴五十年, 三傳至貴金, 亦入地理山, 不出. 王恐琴道不傳, 以允興爲南原守, 俾傳其業. 允興遣安長等二人, 致禮學之, 傳其所秘飄風等三曲. 安長傳子克宗, 有平調·羽調, 傳于世.”

31) 李裕元, 『林下筆記』 卷20, 「文獻指掌編」, 「玄琴」.



하나의 악기로 발전시킨 악기이다. 신라에서는 玉寶高에서 續命得, 貴金에게 계승되어 전수되었다. 그런데 귀금이 지리산에 입산하여 나오지 않자 琴道가 단절될 것을 염려한 왕이 允興을 남원의 사신으로 보내 그 연주법을 전수받도록 하였다. 윤흥이 2명을 뽑아서 귀금에게 보내어 거문고 타는 법을 배우게 하였으나 귀금은 그 기술을 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에 윤흥이 귀금을 찾아가서 예의와 정성을 다하여 전수해줄 것을 청하자, 이후 귀금은 비법을 안장에게 전해주고 안장은 克宗에게 전하여 비법이 널리 퍼졌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학규는 우리나라에 전래하는 고유한 문물의 유래와 내용을 찾아서 밝히고, 여기에 더하여 타국 문물과의 변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자국 문화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소산으로, 자국 문물의 고유성과 독창성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고증에 의한 사물의 기원 탐구

『동사일지』의 글쓰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물의 기원에 대해 고증을 통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사일지』에는 “不知始於何時(代)”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세상의 만물이 과연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자의 지적 탐구욕을 자극하여 고증과 분석을 통해 사물의 기원을 모색하려는 방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학규는 유배지인 김해로 내려간 이후 지식 탐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 늘 답답함을 호소하곤 하였다. 또한 김해지역에 文士가 적은 이유는 장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고을의 유력자들과 함께 도서관에 해당하는 金官書社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곧 이학규는 유배 이전은 물론 유배된 이후에도 지식 탐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이것이 축적된 결과물이 바로 『동사일지』인 것이다.

앞의 표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사일지』에는 과거와 교육에 관한 조

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학규는 서울에서 지낼 당시 『규장전운』 편찬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유배 이후에는 유배지역의 유생들을 모아 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던 바, 과거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監試의 명칭은 전조 『高麗史』 현종 22년에 비롯되었는데, 처음에는 國子監試를 설치하여 詩賦를 시험 보았다.<sup>32)</sup>

糊名の 범은 또한 『高麗史』 문종 16년에 처음 보인다. 國子司業 黃抗之가 유생들을 시험할 때 매우 문란하여 貢闈封緘法을 시행하였는데, 舍人 鄭惟産의 말을 따른 것이다.<sup>33)</sup>

위에 인용한 조목은 각각 「監試」와 「糊名」이다. 두 조목 모두 편폭이 짧은 글 속에서 각 제도의 기원에 대해 고증하였다. 감시라는 명칭은 『고려사』 현종 22년에 보이는데, 처음에는 國子監試를 설치하여 詩賦를 시험 보았다고 기록하여 감시의 기원에 대해 고증하였다. 호명은 과거시험 때 답안지에 쓴 응시자의 이름을 풀칠하여 봉하던 일을 말한다. 이 두 글은 주로 문물의 기원에 중점을 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사일지』의 시발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학규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미물일지라도 자신의 호기심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어 그 기원에 대해 탐구하였다.

南瓜의 속명은 好朴이다. 경외의 상하가 모두 좋아하는데도 제사에는 올리지 않는다. 대개 남과가 식품으로 들어온 것은 명나라 말기에 비롯되었다. 청나라 사람인 張庚의 『國朝畫徵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徐枋의 자는 昭法, 호는 俟齋이다. 長洲사람으로 順정 임오년에 과거에 합격했다. 그의 부친인 徐沂

32)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監試」, p.604, “監試之名, 亦始於勝朝高麗史顯宗二十二年, 始設國子監試, 試以詩賦.”

33)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糊名」, p.604, “糊名之法, 亦始見高麗史文宗十六年, 國子司業黃抗考試甚濫, 始行貢闈封緘法, 從舍人鄭惟産之言也.”

이 을유년 난리에 죽자, 마침내 모래 위에 흙집을 짓고 은거했다. 수옥은 멀리 세상과 떨어져 있어서, 늙은 농부에게 몸소 배워 채소와 부추 외에 남과를 많이 심었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따금 깔고서 새벽밥을 지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들은 것이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남과를 먹은 것은 또한 반드시 인조 이후에 있었다. 사람들은 조상이 먹어보지 않은 것을 제사에 올리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으니, 지금까지 이어져 행해지고 있다.<sup>34)</sup>

이 글의 조목명은 「南瓜」이다.<sup>35)</sup> 저자는 『國朝畫徵錄』의 내용을 인용하여 남과의 기원에 대해 고찰하였다.<sup>36)</sup> 남과는 원산지가 남미로 남쪽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국조화징록』에 의하면 徐枋이란 사람이 부친의 사후에 세상과 떨어져 은거하면서 남과를 많이 심고, 수확한 남과를 식용했다고 한다. 이학규는 이보다 앞서 들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남과를 먹은 것은 반드시 인조 이후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조상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서 지금까지 남과를 올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글은 남과의 기원에 대해 문헌을 통해서 밝히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유래를 나타냈다. 인용된 청나라 문인 張庚의 저작인 『국조화징록』은 명칭 화가들의 전기집으로, 고증을 위한 이

34)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南瓜」, p.619, “南瓜俗名好朴. 京外上下, 無不嗜之, 第不以供祭奠. 盖南瓜之入食品, 始於明季. 清人張庚國朝畫徵錄, 徐枋字昭法, 號俟齋, 長洲人, 崇禎壬午舉人. 父汧, 乙酉殉難, 遂隱居上沙土室. 樹屋邈與世隔, 躬效老圃, 蔬韭外, 多藝南瓜. 夏秋間, 往往藉以晨炊. 前此無聞焉. 我國之食南瓜, 亦必在仁廟以後, 人以祖考之所未嘗, 不當薦之廟祀, 至今猶承行之.”

35) 이학규는 南瓜를 소재로 하여 시를 짓기도 했다. 李學逵, 『洛下生集』 冊18, 『洛下生藁』 上, 『菊半齋集』, 「南瓜三十四韻」, p.566.

36) 『東事日知』에 인용된 부분과 『國朝畫徵錄』과는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張庚, 『國朝畫徵錄』, 「徐枋」, “徐枋字昭法號俟齋, 長洲人, 崇禎壬午舉人. 父少詹事汧乙酉殉難. 枋遂隱居上沙土室樹屋邈與世隔人莫得見也. 家極貧非力不食賣畫賣箬以自存, 躬效老圃蔬韭外多藝南瓜夏秋間往往藉以晨炊卽至藜藿不糝人終雖強以一錢饋也.”

학규의 독서 범위가 화론서의 영역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변의 소소한 미물까지도 치밀하게 따지고 분석하여 고증하는 태도는 『동사일지』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와를 사용해 지붕을 덮는 것이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東史纂要』에 “기준이 이미 위만의 공격을 받아 좌우에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들어가서 마한의 땅인 금마군[지금의 익산군]에 도읍을 정했다. 백성이 모두 십 여 만호였는데, 초옥토실을 지었는데 문이 위로 향해 있었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토실의 문이 위로 향해 있다는 것은 곧 지금의 음실이다. 신라와 고려 시대에 궁해와 사찰은 기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백성의 집은 아직 사용되지 못했다. 충선왕 원년에 이르러 부유한 자들에게 선의문 내의 한지에 길을 따라 기와집을 짓게 하였다. 또 오부와 민가에 명하여 모두 기와로 지붕을 덮게 하고 私窯를 금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中略) 본조의 영조 임금 때에 또한 푸른 기와를 굽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이익을 전용하여 비법을 아들에게도 전해주지 않았으니, 방법이 결국 전하지 않는다. 지금 인색하게 재주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을 ‘靑瓦匠’이라고 부른다.<sup>37)</sup>

위의 조목은 「瓦屋」이다. 瓦屋은 기와를 지붕에 얹어 지은 집을 말한다. 저자는 글의 서두에서 기와지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사물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후에 여러 문헌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기와집의 유래에 대해 시대별로 고증함으로써 사물의 기원을 고증했다. 그리고 영조 때 푸른 기와 굽는 비법을 전해주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유래하여 인색하게 재주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靑瓦匠’이라 부른다고 기록했다. 문물의 기원을 고증

37) 李學遠,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瓦屋」, p.613, “東國之用瓦蓋屋, 不知始于何代. 東史纂要, 箕準既爲衛滿所攻奪, 變其左右宮人入海, 屛韓地金馬郡(今益山郡), 其民捻十餘萬戶, 作草屋土室, 其戶向上. 按既言土室而戶向上, 則卽今之窰室也. 羅麗之世, 宮廡寺刹, 無不用瓦, 而民戶則猶未也. 至忠宣王元年, 命富人就宣義門內閑地, 緣道作瓦屋. 又命五部民家皆蓋以瓦, 命毋禁私窯. … 本朝元陵之世, 亦有燔靑瓦者, 爲專其利, 秘不傳其子, 法遂不傳. 今靳藝不教人者, 目爲靑瓦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와지붕을 제재로 한 글은 『성호사설』에도 보인다.<sup>38)</sup> 『성호사설』에는 백성들의 급한 것으로 먹는 것이 첫째이고 입는 것이 다음이며 거처하는 집이 또 그 다음이라고 하여, 기와지붕의 효용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록했다. 하지만 시골 살림은 여기까지 미칠 힘이 없다고 하면서, 만약 기와를 굽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성호사설』과 『동사일지』에 동일한 제목으로 실려 있는 「瓦屋」은 서술방식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곧 『동사일지』에서 기와지붕의 기원과 유래에 중점을 두어 서술했다면, 『성호사설』은 기와지붕의 효용성과 경제적 측면에 치중하여 서술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학규는 모든 문물의 기원을 탐구하는 자세로 『동사일지』를 저술했다. 호기심은 때때로 새로운 발견의 시발점이 된다. 현상 그대로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주위 사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그 근원을 탐구했던 이학규의 학문 자세는 『동사일지』가 창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 3. 유배지역 특성과 실체험 반영

이학규는 1801년 발생한 신유사옥 때 경상도 김해로 유배된 후 24년간의 유배생활을 보냈다. 유배 초기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울과의 문화적 수준 차이에 절망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생활과 풍속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38) 李瀼, 『星湖僿說』 卷10, 「人事門」, 「瓦屋」, “凡物, 貴慮遠. 聖人乘殷之輅, 取其堅固也. 生民之所急, 食爲最, 衣次之, 室屋又次之. 屋者, 繩直架梁, 用石爲礎, 不使雨漏, 可支數百年. 不然, 腐朽傾圮, 材不可繼, 功費可惜也. 如欲免此, 不憚勞勩, 必須蓋瓦, 但鄉俗無力及此. … 且地用莫如馬, 農業非牛不成, 養馬牛草稿爲重, 貧家或因乏此, 而不得養也, 瓦制若行此, 又補益之大者.”

유배지에서 마주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樂府詩와 紀俗詩, 紀事詩 등의 다양한 현실주의적 한시를 창작할 수 있었다. 곧 유배체험이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간의 연속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민중의 정감과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학규는 오랜 유배생활을 지내면서 유배지인 김해의 풍물과 풍속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는 「菘亭紀事詩」·「金官竹枝詞」·「嶺南樂府」·「己庚紀事詩」 등의 시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유배기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1819년에 김해의 풍속과 풍물에 관한 연작시인 「金官紀俗詩」를 지었고, 같은 해에 『동사일지』를 저술하였다.

지금 풍속에 새해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가시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쪼개어 네 개로 만든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던지는데, 네 개의 윗이 모두 뒤집히면 上采가 되고, 모두 눕혀지면 그 다음이 되고, 세 개가 눕혀지면 또 그 다음이고, 두 개가 눕혀지거나 한 개가 눕혀지게 되면 失采가 된다. 菊圃 姜樸의 「元朝紀俗」詩註에 “세상에 전해지기를 높은 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편과 낮은 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편이 이러한 놀이를 하여 내년의 豊凶을 점친다.”고 하였다. 살피보건대 字書에 梘는 짐승의 뿔로 만든 손가락이라고 한다.<sup>39)</sup>

『동사일지』에는 다양한 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풍속에 관한 조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설날에 세배하는 풍속과 단오에 그네 뛰는 풍속, 망건과 윗놀이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풍속의 이모저모에 대해 박학한 식견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풍속과 풍물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학규가 겪은 유배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유배생

39)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柶木戲」, p.629, “今俗歲朝, 小兒截荊條, 剖爲四枚. 遙相拋擲, 四枚俱覆爲上采, 俱仰爲次, 三仰又其次, 二仰至于仰, 爲失采矣. 姜菊圃元朝紀俗詩註, 世傳高農汚農作此戲, 以占來歲豊凶. 按字書, 柶角匙也.”

활을 지내면서 민중과 현실을 새롭게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서 비롯된 현실 인식이 구체적인 작품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위의 조목은 「柶木戲」로 새해 아침 웃놀이하는 풍속을 기록한 것이다. 이학규는 이 글에서 姜樸의 「元朝紀俗」詩註를 참조하여 웃놀이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박은 재야인사로 있던 시절, 백성들의 다채로운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으로 38수의 세시기속시를 지었다. 이 중에서 「元朝紀俗」시는 총 20수로 구성되어 있다.<sup>40)</sup> 강박은 詩註에서 고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편과 저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편이 다음 해의 풍흉을 점치는데 웃놀이를 이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학규는 웃놀이에 관한 내용 이외에 字書를 통해 ‘柶’의 어원을 고찰하고 있어, 저자의 학문적 관심이 字學에까지 폭넓게 미쳤음을 보여준다.

燒酒는 露酒인데 원나라 때에 비롯되었다. 高麗 辛禡 元年에 교서하기를 “사람들이 검소함을 알지 못하고 사치하면 재화를 낭비하니 지금 이후로 소주, 비단, 금이나 옥 등의 물건은 하나라도 모두 사용하지기를 금한다.”라고 하였다. 「崔瑩傳」에 “김진이란 사람이 경상도 원수로 있을 때 한 도의 이름난 기생을 크게 모아놓고 휘하의 병사들과 밤낮으로 술을 마셨는데 김진은 소주를 즐겨 마시니, 군중에서 ‘燒酒徒’라고 불렀다고 한다. 왜구가 함포를 유린하였을 때에 군중의 무리들이 말하기를 ‘소주도를 시켜 적을 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며 뒤로 물러서고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소주가 온 나라에 널리 행해져서 노예들과 평민들도 마시지 않음이 없으니 속담에 사치하여 분수에 넘친다는 말을 가히 알만하다.<sup>41)</sup>

위의 조목은 「燒酒」이다. 이학규는 高麗 辛禡 元年(1375)에 사치를 막

40) 남재철, 「菊圃 姜樸의 시세계와 세시기속시」, 『한문학회』 13, 우리한문학회, 2005. 참조.

41)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燒酒」, p.626, “燒酒, 露酒也, 自元時始有之. 高麗辛禡元年, 教曰, 人不知儉, 侈用傷財. 今後如燒酒錦段金玉等物, 一皆禁斷. 崔瑩傳, 金縝爲慶尙道元帥, 大集一道名妓, 與麾下士晝夜酣飲, 縝嗜燒酒, 軍中號曰燒酒徒. 及倭焚掠合浦, 營衆曰可使燒酒徒擊賊, 却立不進. 今之燒酒通行一國, 阜隸編氓, 無不飲之, 俗尙之侈濫, 可知已.”

기 위해 소주·비단·금·옥 등의 물건 사용을 모두 금지한 사실을 들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곧 지금 세상에서 소주가 온 나라에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사치하는 풍속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소주의 기원을 고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실의 문제와 결부시켜 자신의 비판적 식견을 드러냈다. 또한 金縝에 관한 일화는 『嶺南樂府』의 창작 동기가 된 고사이기도 하다.<sup>42)</sup> 이학규는 『高麗史』에서 김진의 고사를 읽고 영감을 얻어 『영남악부』를 지었다고 말하여 그 저술동기를 밝힌 바 있다.

「소주」는 유배지역과 관련된 소주도의 일화를 차용하여 소주에 대한 유래를 고증하고, 당시의 사회적 문제와 연관시켜 저자의 비판적 견해를 담아낸 조목이다. 이와 같이 『동사일지』에는 김해와 관련된 사적과 문물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가락국의 마지막 임금인 구형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주름 잡힌 치마옷을 지금의 天翼과 비교하여 제도의 기원을 고증한 「天翼」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sup>43)</sup>

마을에서 입춘일에 춘경제를 지내는데, 그 법은 본래 『禮記』, 「月令」의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찍이 영남지방 김해부의 입춘일을 보니, 고을 관아에 나무로 소를 만들고 호장은 공복을 갖추어 입고 징을 울리며 앞에서 인도하여 동성문 밖으로 나아간다. 迎春場 내에서 선농씨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끝낸 후, 소를 밀면서 땅을 경작하는 형상을 하는 것이다. 『夢華錄』을 살펴보면, “입춘 이전 5일에 함께 토우를 만들고 농부의 쟁기를 대문 밖에 갖추어 놓는다. 이날 새벽에 관원이 단을 만들어 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고, 관리들이 각자 비단으로 장식한 고리를 갖춘다. 소 잡는 것을 세 번 하는데 농사를 권면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이다.”(中略) 춘경의 법은 실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sup>44)</sup>

42) 李學逵, 『洛下生集』 冊6, 「嶺南樂府序」, p.301, “當宁戊辰仲夏, 余有河魚之疾, 日寢臥于因樹屋之西軒, 人有示余鄭麟趾高麗史數篇, 紙墨剝缺, 不堪便讀. 輒沿洄揣摩, 僅解辛禍二年, 合浦軍謂金縝爲燒酒徒一段意. 犁然大樂曰, 是可以作樂府矣.”

43)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天翼」, p.623.



위에 인용한 조목은 「春耕祭」이다. 춘경제는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으로 입춘일에 지낸다. 입춘은 24절기의 하나로 양력으로 2월 4일경이고 음력으로는 정월 명절 무렵이다. 이때부터 햇빛이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이 날에 농사를 권장하고 풍년을 축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이다. 춘경제는 지역에 따라 정월 대보름에 하는 곳도 있고 입춘일에 하는 곳도 있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학규는 김해에 있을 때 직접 견문했던 춘경제의 행사에 대해 기록했다. 이날에는 먼저 나무로 소의 형상을 만들고 공복을 갖추어 입은 부의 호장이 징을 울리면서 앞에서 인도하여 동성문 밖으로 나아간다. 이후 迎春場에서 선농씨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소를 밀면서 땅을 경작하는 형상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목도했던 사실에 더하여 孟元老의 『東京夢華錄』을 참고하여 춘경제에 하는 행사의 내용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저자가 유배지에서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던 사실이 『동사일지』의 주요한 창작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해에서 오랜 시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그곳 민중의 삶과 풍속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사일지』에는 여러 문물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영남지방에서 부르는 명칭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해놓았다. 예를 들면 공기놀이를 서울에서는 ‘控碁’라 부르고, 영남에서는 ‘子籬’라고 부른다고 하였다.<sup>45)</sup> 또한 영남지방에서는 ‘風憲’을 ‘執綱’으로 부른다고 하였고<sup>46)</sup>,

44) 李學遠,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春耕祭」, p.620, “州府, 立春日, 爲春耕祭, 其法本出月令迎春東郊之意. 嘗見嶺外金海府立春日, 府司造木牛, 府戶長具公服, 鑼吹前導, 出東城門外迎春場內祭先農訖, 推牛作耕地狀. 按夢華錄, 立春前五日, 並造土牛耕夫犁具於大門之外, 是日黎明, 有司爲壇以祭先農, 官吏各具綵仗環. 擊牛者三, 所以示勸耕之意. … 春耕之法, 實昉于此.”

45) 李學遠,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瓜子兒」, p.628, “瓜子兒, 我國京城謂之控碁, 嶺南謂之子籬. 劉侗帝京景物略, 正月, 女婦閑, 手五丸, 且擲且捨, 且

‘台子神’을 ‘空中’으로 부른다고 기록하였다.<sup>47)</sup> 유배지에서 20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던 유배지의 문물과 풍속에 대해 깊은 조예가 생기게 된 것이다. 곧 이학규의 김해 유배체험은 『동사일지』에 녹아들어 있으며, 이는 다른 백과전서적 저술과 변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 IV. 맺음말

이학규는 남인가에서 성장하면서 성호학과 문인에게 직접 사숙하고 교류하는 등 가학의 전통을 깊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외조부인 이용휴의 문학과 외숙인 이가환의 박학한 학문을 이어받아 성호학파의 마지막 세대 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학규의 문집에서 문예적인 글과 실학적인 저술이 공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학규는 1801년 유배로 인해 성호학과 문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단절되었으나, 가학의 지적 전통 계승은 유배기간에도 지속되었다.

이학규가 유배지에서 저술한 『동사일지』는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문물·제도·풍속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고금의 문헌자료와 직접 견문한 체험을 활용하여 고증하고 기록한 것이다. 『동사일지』에는 이학규의 박학한 식견과 현실에 대한 안목이 드러나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실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저자의 뚜렷한 주관이 엿보인다. 『동사일지』가 저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호학파의 백과전서적 학풍이 자리하고 있다. 성호학파의 종장인 이익의 문인이었

承, 曰瓜子兒. 丸用象木銀礫爲之, 競以輕捷. 宛然今之控棊也.”

46)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風憲」, p.609, “我國郡縣風憲之任, 不見如中國之社長, 皆凡民之稍知事理者爲之. … 今嶺南諸郡縣, 謂風憲爲執綱, 以此也.”

47) 李學逵, 『洛下生集』 冊20, 『東事日知』, 「台子神」, p.608, “台子神, 中國謂之乩仙, 亦曰箕僊, 或曰紫姑神. … 今之台子亦於空中作人語聲, 嶺南謂之空中.”

던 이용휴와 이가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학규는 외가인 남인가의 학맥을 이어받아 『동사일지』를 저술할 수 있었다. 곧 『동사일지』는 성호학파의 백과전서적 학풍을 고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저작인 셈이다.

『동사일지』에는 저자의 학문적 글쓰기와 개인적 체험이 잘 반영되어 있다. 『동사일지』를 저술할 당시 이학규는 국토 남단에 버려진 유배객의 신세였다. 유배지의 환경은 문헌자료의 부족함 등 여러모로 제약이 따랐으나, 한편으로는 그곳의 사적과 문물을 직접 견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학규는 유배지에서 직접 목도한 민중의 생활과 풍속을 근거리에서 포착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록했다. 유배지역에서 민중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정감어린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학적 세계로 수용하여 기록화한 것이다.

『동사일지』는 이학규가 유배생활 19년째 되는 해에 기록한 저술이다. 유배지의 열악한 환경과 서책의 궁핍함을 토로하던 그가 『동사일지』를 저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유배로 인해 經世의 기회가 좌절된 현실에서 致用의 목적으로 저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이학규는 유배지의 유생들을 돕기 위해 금관서사를 설치한 바 있고, 또한 『食忌譜』를 비롯하여 민중의 실생활에 유용한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 『동사일지』를 저술한 또 다른 이유는 당대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유배 후반기에 실학적 성격의 글들을 왕성하게 저술하며 실학과 문인으로 자임했던 이학규는 당대 세상과 현실의 지식과 정보를 집대성하려는 목적에서 『동사일지』를 저술한 것이다.

#### <參考 文獻>

- 安鼎福, 『東史綱目』, 한국고전번역원.  
 李家煥, 『貞軒瑣錄』,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李用休, 『惠寔雜著』,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李裕元, 『林下筆記』, 한국고전번역원.

- 李 瀾, 『星湖僊說』, 한국고전번역원.
- 李學遠,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 290, 한국고전번역원.
- 張志淵, 『逸士遺事』, 태학사, 1982.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한국고전번역원.
- 韓致胤, 『海東釋史』, 한국고전번역원.
-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 남재철, 「菊圃 姜樸의 시세계와 세시기속시」,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2005.
- 문창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2, 한국고대사학회, 2011.
-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연구』, 보고서, 2005.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 출판부, 1998.
-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학풍 연구』, 혜안, 2003.
- 이가원, 『李家源全集』, 정음사, 1986.
- 이우성, 「『近畿實學淵源諸賢集』 해제」, 『近畿實學淵源諸賢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임형택, 「『洛下生全集』 해제」, 『洛下生全集』, 아세아문화사, 1985.
- 정우봉, 「『近畿實學淵源諸賢集』 해제」,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정은주, 「낙하생 이학규의 산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 「낙하생 이학규 문학의 변모 양상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 「조선 후기 家蓼 재배와 『蓼書』」, 『한국실학연구』 24, 한국실학학회, 2012.
- 정은진, 「근대적 일상의 탐구와 기록정신-이가환의 『정헌쇄록』 해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 진재교, 「19세기 筭記體 筆記의 글쓰기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 Abstract

*The historical research and record about the literary men's called  
SungHoHakPa civilization in the 19th century, 『DongSallGy』  
/ Jung Eun Joo\**

DongSallGy is the literary written by Lee, HakGyu in 1819, which was 19th time he has been exiled to KimHae. This work is corresponded a literary work that he had researched and recorded the diverse cases about Korea's history, geography, civilization, customs and etc with all 123 items throughout the various articles. DongSallGy includes the author, Lee. HakGyu's vast intellectual world and reading experience just as it was. Therefore it's the work we could see his practical thoughts as well as the motive to create the realistic Chinese poetry to be watched with keen interest by an authority of the academic world.

Lee, HakGyu and his writing has been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of NamIn Family at his mother's side. The creation background of DingSallGy is the family tradition of SungHoHakPa, which carried on the academic genealogy. SungHoSaSul and JungHunSeoRok is the representative encyclopedia work of SunHoHakPa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On the other hand, DongSallGy is encyclopedia work of SunHoHakPa in the 19thcentury. A series of writing from SungHoSaSul to JungHunSeoRok and to DongSallGy shows us the aspect of SunHoHakPa's encyclopedia academic style to be succeed by periods.

This research tried to find out both DongSallGy's characteristic aspects and its true meaning in the SungHoHakPa's writing tradition. The set-up fact is SungHoSaSul and JungHunSeoRokwas the SunHoHakPa's representation

---

\* Lecturer of SungKyunKwan Univ. / somedayjj@hanmail.net

encyclopedia work before DongSallgy and it showed the features after comparing each works. This research to examine closely about DongSallgy's contents and features will be an opportunity to light the SungHoHakPa's academic style and aspec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well as to guarantee Lee,HakGyu himself the aspect of practical literary man in history.

【Key words】 DongSallgy, Lee Hak-Gyu, SungHoHakPa, NamIn Family, encyclopedia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